



산재 치료, 두 곳에서 받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병행진료 신청서' 완벽 가이드

입원 치료 중,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사고로 이가 깨졌는데,
입원한 병원엔 치과가 없어요.



정밀 검사를 위해
MRI를 찍어야 하는데,
여기엔 장비가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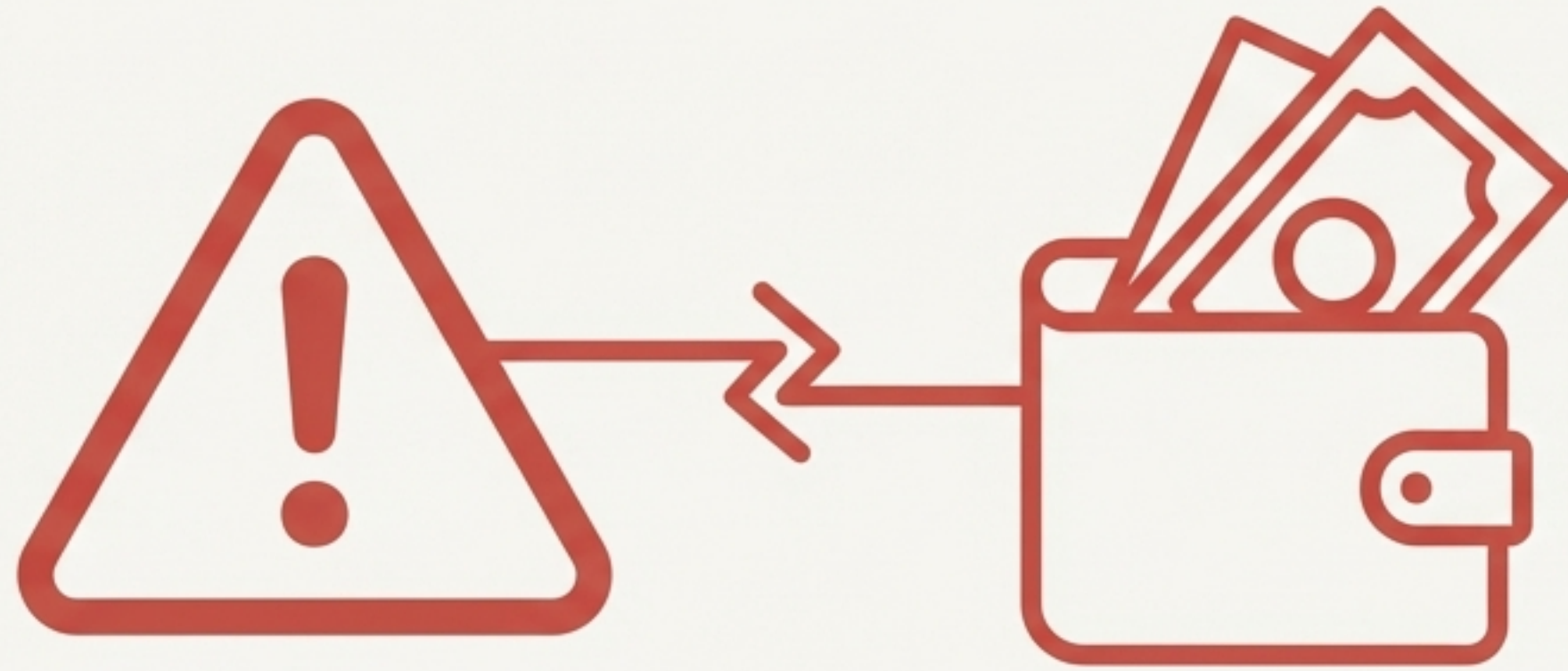


수술 후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한방 치료를 같이 받고 싶어요.



특정 진료과(비뇨기과 등)의
진료가 꼭 필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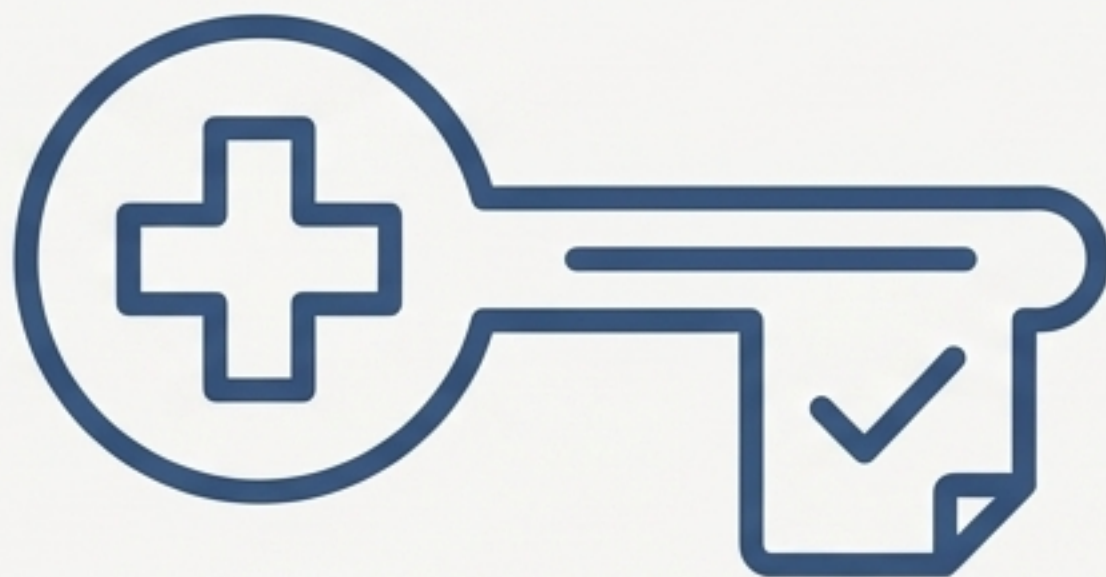
승인 없이 다른 병원에 갔다간...



치료비 전액 100% 본인 부담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 비용이 산재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해결의 열쇠: 병행진료 신청서



산재 보험으로 두 번째 병원까지 지원받는 공식 허가서입니다.

누가? (Who?): 환자 본인

언제? (When?): 현재 병원에 없는 진료가 필요할 때

어디에?(Where?): 관할 근로복지공단

산재 치료의 기본 원칙과 유일한 예외

원칙적으로 산재는
‘한 번에 한 병원’에서만
치료받아야 합니다.



‘병행진료 신청’은 이 원칙의
공식적인 예외를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승인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핵심 원칙: '없는 것' 채우기

현재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치료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승인 가능 (Approval Possible)

- MRI 등 없는 검사 장비
- 치과, 비뇨기과 등 없는 진료과
- ✓ 주치의가 동의한 한방 치료
- ✓ 상급병원(대학병원)의 정밀검사/수술

❌ 반려 사유 (Reason for Rejection)

- 더 잘하는 물리치료
- 단순히 더 받고 싶어서
- ⊘ 산재와 무관한 질병 치료
- ⊘ 주말에 집 근처에 가려고

가장 흔하게 승인되는 성공 사례: 양방 + 한방 협진



상황 (Situation): 정형외과에서 골절 수술 후 입원/재활 치료 중

필요 (Need): 극심한 통증 완화 및 빠른 회복을 위해 침, 뜸, 한약 등 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싶음

결과 (Result): 주치의가 동의하고 '진료 의뢰서'를 써주면 높은 확률로 승인

이렇게 쓰면 반려됩니다: 실패 사례 분석

CAS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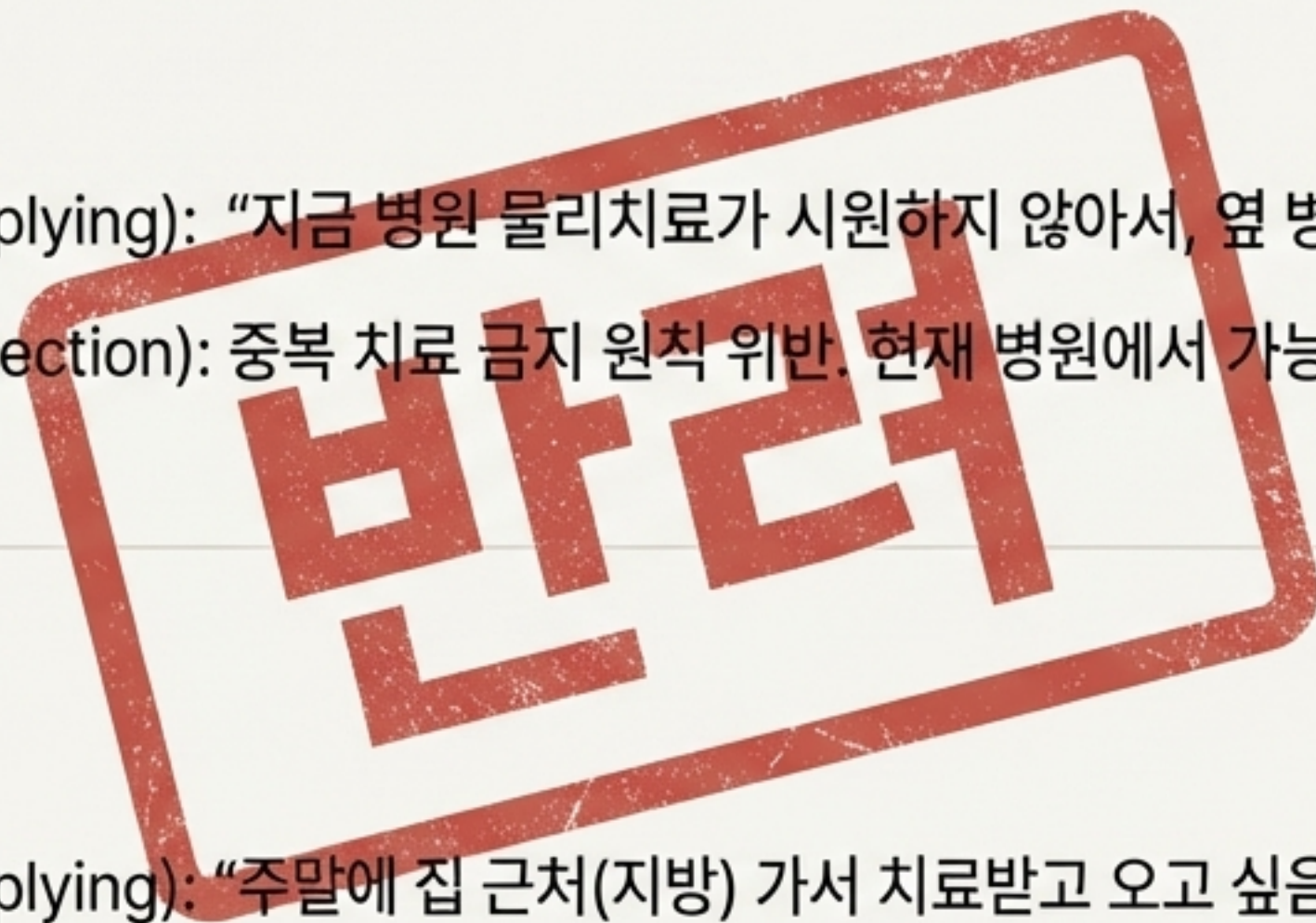
👤 신청 사유 (Reason for Applying): “지금 병원 물리치료가 시원하지 않아서, 옆 병원 가서 도수치료도 받고 싶음.”

✗ 반려 원인 (Reason for Rejection): 중복 치료 금지 원칙 위반. 현재 병원에서 가능한 치료임.

CASE 2

👤 신청 사유 (Reason for Applying): “주말에 집 근처(지방) 가서 치료받고 오고 싶음.”

✗ 반려 원인 (Reason for Rejection): 임의 진료 및 환자 상태 고려. 치료의 연속성이 깨지고, 장거리 이동은 무리라고 판단.



이렇게 쓰면 승인됩니다: 성공 사례 분석

CASE 1: 장비 부족 (Lack of Equipment)



작성 예시 (Example Wording):

'현재 입원한 의원은 MRI 장비가 없어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인근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에서 MRI 촬영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입니다.'

CASE 2: 진료과 부재 (Lack of Department)



작성 예시 (Example Wording):

'업무 중 안면부 골절로 입원하였으나, 치아 파절이 동반되었습니다. 원내에 치과가 없어 외부 외부 치과에서의 긴급 치료가 필요합니다.'

승인을 위한 3단계 실행 계획



1. 주치의와 상담하기 (Consult Your Doctor)

필요한 치료와 병원을 정하고,
'타 의료기관 진료 의뢰서'를
요청하세요.



2. 신청서 작성하기 (Write the Application)

'왜 이 병원에서는 안되는지'를
명확하게, '없는 것'을 채운다는
논리로 작성하세요.



3.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Submit to KCOMWEL)

진료 의뢰서와 함께 관할 공단에
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주치의에게 요청하는 실전 대화법

원장님, 사고 때 다친 것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는 치과가 없잖아요. 근처 치과 다녀올 수 있게 **[타 의료기관 진료 의뢰서]** 하나만 써주실 수 있나요? 그거랑 병행진료 신청서 같이 내려고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해서 승인되면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A. **100% 산재 보험 처리됩니다.** 승인된 두 번째 병원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도 모두 공단에서 부담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입원 중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통원 치료 중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정형외과에서 통원하며 B한의원을 병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약물 중복 처방 우려 등으로 인해 통원 시 심사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심화편

Q. 너무 급해서 승인 전에 먼저 다른 병원에 다녀왔어요. 이제 끝인가요?

A. 포기하지 말고 일단 신청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사전 승인이지만, '사후 승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 (Key): 왜 응급 또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사유를 잘 소명해야 합니다.

팁 (Tip): 당시 진료를 봤던 의사에게 '이 치료가 꼭 필요했다'는 소견서를 받아 첨부 하면 승인 확률이 올라갑니다.

출발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주치의와 먼저 상의했는가?
- ☐ '진료 의뢰서'를 받았는가?
- ☐ 신청 사유는 '없는 것'을 채우는 논리인가?
- ☐ 가려는 병원이 너무 멀지는 않은가?
- ☐ 중복되는 치료를 신청하는 것은 아닌가?

더 궁금한 점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기관명 (Organization):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대표전화 (Main Phone Number): 1588-0075

웹사이트 (Website): www.kcomwel.or.kr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치료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